

第47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11日(木) 11시 10분 開式

第47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 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11時 10分 開式)

○議事係長 吳益煥 지금부터 제47회 鍾路區會議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李斗鶴 여러 議員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사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실텐데 변함없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니까 본 의원도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럭저럭 저희들의 임기도 하루 이틀 이렇게 중지부를 찍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래 전에 결의한 것과 같이 조금도 구민의 그러한 봉사기간으로서의 근본정신에 어긋남이 없이 끝까지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의회운영

을 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말씀드리고 아다시피 매주 화요일은 상임위원장 이상이 이유 불문하고 자기 공사를 초월해서 의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구정을 위한 토의와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앞으로 머지않아 닥쳐오는 그러한 지방화시대에 잠바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날짜만은 우리의 구민에 대한 약속에 소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재삼 천명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기회 있으면 우리의 제2의 집이니까 허물없이 자주 의회에 나와서 사실로 의원들간에 서로 구정과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담을 나눠주시고 지속적이고 공간없는 우리 의회 운영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하는 그러한 깊은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제가 추측하건데 오늘 이 임시회가 그럭저럭 마지막 임시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혹시나 주요 안건이 또 상정될 때는 또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언정 우리는 6월말까지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하게 종로구의회의 이름을 걸고 이행을 한다하는 그 말을 재차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저의 두서없는 본회의 말로 같음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吳益煥 이것으로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18分 閉式)

